

제65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

성경중심의 교단과 교회 자부심

동성애확산 방지 및 차별금지법 저지



의장 총회장 조남영 목사, 총도 증경총회장 박영찬 목사, 개회기도 증경총회장 임종달 목사, 폐회기도 증경총회장 진동용 목사, 성경봉독 부총회장 김갑신 목사, 사회 총무 최형택 목사, 기도 제주지방회장 김건수 목사



교단 총회(총회장 조남영 목사) 제65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가 지난 6월 27일(월) 오후 1시 총회본부에서 열려 동성애에 반대하는 헌법 개정의 혼란을 막고 동성애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 하심을 감사드리고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최형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제주지방회장 김건수 목사의 대표기도, 부총회장 김갑신 목사의 성경봉독, 총회장 조남영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행 13:22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중심의 교단에서 설교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고"고 전하고 "하나님 먼저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회개의 눈물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한 뒤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는 사역자들이 다 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교단 증경총회장 박영찬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다.

의장 조남영 목사 주례로 열린 회의는 교단 증경총회장 임종달 목사의 개회기도 후 서기 홍현철 목사의 회원점명, 총회장 조남영 목사의 개회선언 후 보고서

항이 이어졌다. 보고서항에서 교단 총무 최형택 목사는 교단업무보고사항으로 65차 정기총회 성료, 해외 선교사 목사안수, 제6회 전국사모연합회 정기총회, 65차 총회장 조남영 목사 취임예배, 동성애에 반대하는 헌법 개정 미스비금지기도회, 2017 목사고시위원회, 총회 목대원 신학교 종강예배 등의 내용들이 보고되었다.

이어 재무 조원제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안재홍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의 및 안건토의 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복귀 청원, 교회전출입 청원, 교회명칭변경 보고 건이 보고 결의되었으며 65차 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각 국장과 각 위원장이 각각 연임 또는 새로이 임명되었다. 평신도국장에 임명자 목사가 새로 임명 인준되었고 서울남서지방회장에 이복순 목사로 변경 인준되었다.

기타사항으로 교육국 주관 종교동부 연합수련회 7월 중 개최, 고시위원회 주관 목사고시위원회 모인, 목대원 상반기 계절학기 개설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각 지방회별 교단발전기금 납입을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 이날 실행위원회는 직전총회장 진동용 목사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일(화) 양일간 치러진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목사고시 세부일정 광고(본지 1048호 2016년 7월 2일자 8면 하단 광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5차 총회 고시위원회 1차 회의 2017년도 목사고시일정 확정

교단 고시위원회(위원장 김인규 목사)는 지난 6월 16일(목) 오전 1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65차 총회 고시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2017년도 목사고시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고시위원장 김인규 목사는 대상 12:32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마땅히 행할 것을 밝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갈 것을 당부하고 위원들을 축복했다.

곧바로 이어진 회의에서는 목사고시 세부일정을 확정했다. 목사고시 서류접수 마감은 2016년 8월 31일(수)까지이며 목사고시는 2017년 2월 20일(월), 21



일(화) 양일간 치러진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목사고시 세부일정 광고(본지 1048호 2016년 7월 2일자 8면 하단 광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벨엘메모리얼파크와 업무협약

상호간에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키로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이용주 목사)는 지난 6월 22일(수) 오전 11시 벨엘메모리얼파크(이사장 홍정선 목사) 사무실에서 벨엘메모리얼파크와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간에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관계를 이어갈 것을 협약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기독교교단협 대표회장 이용주 목사와 사무총장 김용도 목사, 벨엘메모리얼파크 이사장 홍정선 목사가 참석한 가운데 벨엘메모리얼파크가 추모공원을 건립 운영함에 있어서 기독교교단협의회가 회원교단에 활용을 홍보하기로 했으며 벨엘메모리얼파크는 공급가격을 최대한 저렴하게 기독교교단협의회 회원교단에 공급할 것을 협약했다.

양 기관은 상호간에 형편이 되는 한 최대한 협력하여 서로 유익이 되도록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프루도초장은
바람이
스피치

‘적극적 자세로 살아가게 되는 이유’

“우리가 알게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적극적 생활자세”란 능동적, 긍정적, 자발적, 진취적, 활동적 성향을 가진 생활태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소극적 자세’보다 ‘적극적 자세’가 더 현명하고 나은 생활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혼에 일어나는 변화뿐 아니라 생활자세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 변화는 각 사람의 신앙의 깊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더하여질수록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가게 되는 이유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알고 확신하게 되면 언제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하였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경험담이 고린도후서에 있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자격과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감에 차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지만 자신을 의지하는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한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 라.”(고후 1:8-9)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를 받았습니다. 낙원에 이끌려 갔다 온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

로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고후 12:7)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에게 있는 문제로 인하여 더욱 겸손하게 되어 하나님을 깊이 의존하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당한 극심한 환난을 통하여,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로 인한 고통을 통하여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활하신 능력에 믿음의 벨트를 걸고 부단히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노력하게 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할 수 있으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기 능력만을 의지하면 한계에 도달할 때 낙심하여 소극적 자세를 취하게 되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을 의지하고 구하는 사람은 더욱 적극적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셋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다가오는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가 처한 현실을 언제나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대처해 나갔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적극적인 자세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즐겁게 행하였습니다. 그러하여 마침내 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약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확신하는 성도는 항상 마음에 여유와 평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총회 목대원 2016학년도 제1학기 종강예배

신앙의 본질에 흔들림이 없어야



임종달 목사 목대원장, 설교 조용목 목사 정책위원장, 대표기도 김용도 목사 증경총회장

총회 목회대학원(위원장 임종달 목사) 2016학년도 제1학기 종강예배가 지난 6월 27일(월) 오전 11시 총회 목회대학원 대성전에서 드려져 한학기동안 수고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종강예배는 총회 목대원 사무국장 윤기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교단 증경총회장 김용도 목사(총회 목대원 교수)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총회 목대원 이사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행 26:24-29 말씀을 본문으로 “나처럼 되기를 원하노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복음사역자의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평신도든 공로든 팔신도든 팔나는 것처럼 모든 것은 본질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며 다원

주의 신앙에 빠지고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잘못되어있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를 믿고 전하는 사역자들이 되며, 사도바울의 나처럼 되기를 원하노라라는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당부하고 신학생들을 축복했다.

총회 목대원 원우회장 김라함 전도사의 헌금기도 후 사회자의 광고, 총회 목대원 원장 임종달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6·25 상기 66주년 나라를 위한 특별기도회

기독교지도자협,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 위해 기도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목 목사)는 지난 6월 20일(월) 서울 광화문 코리야나호텔에서 '6.25 상기 66주년 나라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개최하고, 한국교회와 온전한 회복과 대한민국의 정체성 수호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대표회장 신신목 목사의 사회로 김동권 목사(예장합동 증경총회장)의 기도와 장흥길 장로(기민협 상임부회장)의 성경봉독에 이어 최윤권 목사(서울기독대 전 총장)의 설교순으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피는 흐르고 있다"라는 제목

의 설교에서 "나는 6.25를 통해 수많은 죽음을 목도했고, 전쟁이 가져온 비극을 몸소 체험 했다"면서, "공산주의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하나 정의가 없는 공산주의는 결코 평화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2부 특별기도회는 김탁기 목사(기독교협 증경회장)의 사회로 김진호 목사(기감 증경감목회장) 6.25와 같은 민족비극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김동원 목사(기장 증경총회장) '북한의 핵도발 방지와 한반도 안전을 위하여', 원종문 목사(미래선 증경총회장)가 '정체성의 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하여' 각각의 주제를 놓

고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조석규 목사가 합심기도를 한 후, 신 권희로 목사가 6.25 66주년 기념 시 '625전쟁 66돌'을 낭독했다.

이날 지도자협은 6.25 전쟁 66주년 결의문도 발표하고 북한 김정정은 정권을 향해 핵무기 포기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지도자협은 이 결의문에서 "북한의 김정은은 괴뢰집단은 즉각 핵개발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유엔결의안을 수용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평화적인 질서와 교류에 동참해 주변 국가와 우방국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철저한 안보태세와 주변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며, 외교적 채널을 총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북한과의 대화도 조속히 실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서울시장 앞 쿠파어족과 관련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서울시를 향해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66회 6.25 상기 연합예배

(사)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 등 3개 단체 연합



(사)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이사장 양정섭 목사) · (사)세계개혁교회연합회(총재 김권현 목사) · (사)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박형렬 목사)가 공동주최한 제66회 6.25상기 연합예배가 지난 6월 21일 종로구 여전도회관 2층 무이시기념관에서 드렸다.

이날 예배는 노종관 목사(세계개혁교회

연합회 상임부총재)의 사회로 김권현 목사(세계개혁교회 총재)의 기도, 송요셉 목사(예장개혁2총회 총회장)의 성경봉독에 이어 박형렬 목사(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의 잠 17:14-19, 롬 16:17-20 말씀을 본문으로 한 '전쟁에 대한 바른 정체성'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박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공화하

심을 입는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로 거듭나 평화를 도모하고 전하는 나라가 되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수출국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 특별기도시간을 갖고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하여' 최옥석 목사(세계개혁교단연합회대표회장)가,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 · 세계개혁교회연합회 · 한국개신교교단협 3개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서경숙 목사(예장합동부총총회 부총회장)가, '일본화가촉구와 우리 땅 독도지킴이 위하여' 정현 목사(예장예합총회총무)가, '복음으로 남북통일을 위하여' 정광용 목사(예장개혁교회총회 부총회장)가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연합예배는 강희준 목사(예장개혁총회 총회장)의 인사와 광고 후 양정섭 목사(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이사장)의 축도로 마쳤다.

화해중재원 · 교회법학회 제3회 포럼

‘교회와 목사의 법률관계’ 주제로 고찰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과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전주남 목사)가 지난 6월 20일 오후 서울연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교회와 목사의 법률관계: 목사의 선임과 해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3회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박종언 목사(한교연 인권위원장)의 주제발표, 지정 ·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박종언 목사는 "목사의 위임과 해임의 주체는 그리스도이고 그 권위로 노회(지방회)가 관할한다"며 "목사는 교회의 주인도, 고용인도 아니다. 그것은 신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목사가 신자들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서운 교만"이라고 했다.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서한재 박사(한국교회법학회 회장)도 "일부 법원이 취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회와 담임목사의 법률관계가 위임계약이고 민법상 그 해지의 자유를 들어 지교회 교인들에게 담임목사 해임권이 있다고 보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서박사는 "교회는 일반적 세속단체와는 다르고 그 대표자인 담임목사도 다른 지위에 있다"며 "따라서 교회와 담임목사의 관계를 순전히 세속법인 민법의 입장에서만 파악해 해임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백현기 변호사(법무법인 유한로 고스)는 "담임목사의 해임권의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는 종교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노회와 교회의 관계에서 담임목사의 지위의 문제"라며 "이런 점에서 교회는 스스로 일

하는 주체이므로 법원이 교회 정치 체제를 부인하고 교회 헌법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발제자(박종언 목사)의 주장은 주제와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담임목사에 대한) 노회의 해임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고 해서 교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법원이 노회의 해임권을 인정했다면 그것은 노회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했다.

제100회 총회산하 교역자 수련회

예장합동개혁신, 더 나은 교역자로서의 사명감당하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신 제100회 총회산하 교역자 수련회가 지난 6월 13일(월)~15일(수) 수안보파크호텔에서 "궁정의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자"(민 14:4-10)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수련회에서 총회장 남윤국 목사는 설교를 통해 "궁정적인 사역관을 통해 좋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동역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수련회는 총회원들이 사역하는 가운데 힘이 되고자 영적으로는 증거를 만드는 주의 종으로서 가져야 할 것들을, 육적으로는 주님의 사역을 해 나감에 있어 근원적인 건강과 치유의 근원을 음급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를, 또한 정신적으로는 NLP 코칭을 통해 정신분석적 접근 및 대인관계 분석, 행동주의 관계지향으로 치유함으로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함으로 더 나은 교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 수련회를 가졌다.

예장합동개혁신은 (사)예종연(대표회장 유영섭 목사) 소속교단으로서 연합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나다갤러리처치 개관식 및 작품전시회

공교회성과 공공성 확대 위해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갤러리처치와 마을공동체 문화예술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사이버박물관연합회(회장 장현일 목사, 생명나무교회)가 지난 6월 17일 오전 11시 나다갤러리처치(관장 권성기)를 개관했다.

김화영 목사(나다공동체 대표)의 사회로 열린 개관식에서 장현일 연합회장은 축사를 통해 "갤러리로서 작품 전시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수권을 부여하며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프로그래밍을 함께 기획하고 소통하며 지역

사회와 공간을 공유하는 강하고 작은 강소교회의 공교회성과 공공성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문홍선 강서구부구청장 역시 축사에서 "나다갤러리가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는 찾고 싶은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나다갤러리처치 개관기념 특별전시에는 독특한 표현방식으로 잘 알려진 김용모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었으며 김 작가는 미국 뉴욕대(NYU)유학시절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세계미술의 중심지로 유명한 소호(SOHO)지역을 직접 경험하면서 미술작가들의 네트워크형성과 같은 인사들의 꿈을 키워온 것이 결실이었다.

김용모작가는 뉴욕시립 독보적인 "김용모스타일" 표현방법으로 세계미술시장의 중심인 미국 뉴욕에서 쿼터들은 뉴욕의 컬렉터들을 뜨겁게 열광시켰다.

2016 한국기독언론포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국교회와 펜’ 주제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방향 제시

2016 한국기독언론포럼이 지난 6월 23일(목) 오후 4시 AWC컨벤션센터 3층 크리스탈홀에서 '한국교회와 펜'이라는 주제로 열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나아갈 방향을 기독언론을 통해 제시해 줄으로서 한국교회를 부흥으로 이끌며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기독언론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포럼에 앞서 드린 감사예배는 한국기독교언론사후원재단 상임대표회장 김진옥 목사의 사회로 지창용 목사(한국법회예방국민운동본부 실무회장)의 대표기도, 문형봉 장로(특수경찰신문 편집국장)의 성경봉독, 송용필 목사(한기스프츠총연 대표회장)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송 목사는 롬 5:18-19 말씀을 본문으로 '한사람'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소중한 기독언론인의 사명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교회를 위해 귀한 일을 감당해 온 김준호 목사, 유달상 장로, 고정량 목사에게 공로패를 증정했으며 이상철 장로의 광



고, 신연옥 국장의 내빈소개 후 곧바로 2부 포럼이 이준영 목사(월간 평생목회 편집주간)의 사회로 열렸다.

한국기독교언론사후원재단 이사장 임원순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해 온 언론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김동권 목사와 박종선 목사의 축사, 김준호 목사의 인사말이 있은 후 주제발표에 들어갔다. 김명혁 목사의 '한국교회와 가이할

방향', 이윤규 목사의 '한국교회와 기독언론의 관계', 고시영 목사의 '한국기독언론의 윤리성과 책임'을 주제로한 주제발표가 이어져 한국교회와 기독언론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패널토론에 나선 한은수 감독과 유영대 기지는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행위의 근원과 한국교회와 언론의 건전한 견제역할과 상호보완 관계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콩고민주공화국 7천부 성경기증

불어판 성경, 오는 9월 배포될 예정

대한성서공회(사장 권의현)는 6월 16일 오전 11시 경기도 용인시 공세동 빈포센터에서 콩고민주공화국(DRC)에 불어성경 6324부

키투바어 성경 1712부 등 총7,036부를 보내는 콩고민주공화국 성경 기증 예식을 가졌다. 이날 기증예식은 캐나다 크리스천월드와 하와



이한인기독교총연합회, 교문교회)가 후원하여 불어로 발행하여 콩고에 기증하게 되었다.

컨테이너에 성경장자식에서 장현일 목사(캐나다 스코필드재단 한국아시아성 생명나무교회)는 삼치기도를 통해 "오래 내전으로 수많은 고난과 생명이 사망하고 고문과 폭행으로 죽어 가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위한신체적 정신적 영적 회복을 돕는 콩고성경대기 사업을 통해 수많은 국민들이 말씀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소망두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기도했다.

대한성서공회 호재민 부총무는 최대원 원로목사(교문교회) 장현일 목사, 장세현 목사(하와이한인기독교총연합회 회계)에게 불어 성경을 증정했다. 이날 컨테이너에 실어 보낸 성경전서는 6월말 부산항에서 선편으로 운반되어 9월 초 콩고공화국 마타디(Matadi)에 도착, 배포될 예정이다.

제2회 서울YMCA 청소년 모의유엔대회 실시

내달 29일~31일 ... 글로벌 리더로 통찰력 키울 기회

서울YMCA는 청소년들의 국제사회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YMCA만의 세계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2회 청소년모의유엔대회'를 7월 29일~31일, 킨텍스(KINTEX)에서 실시한다.

직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대회는 다양한 국가의 문화와 영어토론능력 향상,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사고능력을 키워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외국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함으로써 한중 성숙한 생각의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제사회에 대한 다양한 내용으로 주한유엔연합(UN)대표부 대사가 참여하여 강의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수상자에게는 뉴욕 UN본부 탐방의 기회까지 제공한다. 이러한 강의 및 토의 등에 관한 내용을 수집하여 마타디 청소년들의 사회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주)둥아오츠카, (주)웨스트진베이커리, (주)인장 등 많은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여 청소년들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에 함께할 예정이다.

'제2회 서울YMCA 청소년 모의유엔(MUN)대회'는 7월 10일까지 접수이며, 참가대상은 초등학교 6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이다. 참가신청은 서울YMCA 청소년활동부 홈페이지(www.youthymca.or.kr)에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김순덕 목사 임직

호남지방회

호남지방회(회장 김장구 목사)는 지난 6월 14일(화) 오전 11시 순복음의남교회(담임 김선영 목사)에서 김순덕 전도사에 대한 목사임직예식을 갖고 마지막 때 땅끝까지의 복음전파 사역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직예배는 지방회 총무 서태도로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민순목 목사의 대표기도, 재무 조사랑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김장구 목사(월양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마 3:13-17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복음의 일꾼인 목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마귀의 계락을 많은 영혼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며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세



상과 명예와 물질에 두게 하는 일들을 멸하여 많은 영혼의 영육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임직자와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김장구 목사, 김선영 목사, 조남연 목사, 유영욱 목사, 김성호 목사를 안수위원으로

하여 거행된 임직식은 서약, 안수례, 착의, 약수례, 지방회장 김장구 목사의 공포 순으로 거행되었으며 유영욱 목사와 장영기 목사의 권면, 김성호 목사와 최병진 목사의 축사 후 증경회장 조남연 목사의 축도로 임직예배의 모든 순서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정환무, 김윤성 목사 임직예배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홍현철 목사)는 지난 6월 19일(주일) 오후 5시 은혜충만교회(담임 조은혜 목사)에서 정환무, 김윤성 전도사에 대한 목사임직예식을 갖고 마지막 때 땅끝까지의 복음전파 사역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직예배는 지방회 서기 박영욱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조병희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교단 증경총회장 유봉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유 목사는 계 2:10 말씀을 본문으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종의 사명을 죽음을 불사하기까



지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임직자와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서기 박영욱 목사의 인도로 이어진 임직식은 서약, 안수례, 착의, 약수례, 지방회장 홍현철 목사의 공포 순으로 거행되었으며 증경

회장 고영권 목사와 교단 총무 최형택 목사의 축사, 증경회장 박영호 목사와 부산아버지학교 지도목사 장정규 목사의 권면, 정환무 목사의 담사, 증경회장 정기영 목사의 축도로 임직예배의 모든 순서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순복음장자교회 창립7주년 감사 및 임직예배

충서지방회

충서지방회(회장 차흥식 목사)는 지난 6월 19일(주일) 순복음장자교회(담임 오수경

목사) 대성전에서 창립7주년 감사 및 제직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영권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부회장 안흥규 목사의 대표기도, 교단 직전총회장 진동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진동용 목사는 출 18:8-16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 너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늘 임직 받는 임직자들은 하나님의 충성된 사명자들이 되어야 하고 아론과 훌처럼 담임목사의 손을 붙들어 잡아줄 때 여호와 너의 교회가 되어진다.”고 전하고 임직자들과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제직 임직식은 지방회장 차흥식 목사의 서약과 안수식, 권면이 있었으며 회계 이인목 목사의 헌금기도와 차흥식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면에 나선 차흥식 목사는 “임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워서 바른 임직자들이 되라.”고 하였다.

임직예배를 마친 후 순복음장자교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풍성한 저녁식사를 대접받고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주님의교회 교단가입예배, 바른 복음전파 헌신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이성석 목사)는 지난 6월 14일(화) 오전 11시 주님의교회(담임 방재홍 목사) 교단가입 감사예배를 드리고 바른 복음전파를 위한 헌신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권점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이동백 목사의 대표기도, 서기 신희섭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이성석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엡 3:1-13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늘날 주님은 믿음의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와 생명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또한 믿음으로 발견을 내 딛고 승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 나아가는 교회가 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증경회장 박기만 목사의 권면, 직전회장 오경덕 목사의 축사, 재무 김은수 목사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최용운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주님의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다과를 나누며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영남동지방회 목회자와 같은 지역에 있는 목회자 그리고 주님의교회 성도들은 담임 방재홍 목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순복음복울산교회 제직임직예배드려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이성석 목사) 순복음복울산교회(담임 윤득주 목사)는 지난 6월 19일(주일) 오후 4시 동교회 대성전에서 안수집사 추호철, 박상진과 권사 송금숙 명예 권사 김재분 성도들의 임직감사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직분을 맡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권점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이동백 목사의 대표기도, 서기 신희섭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이성석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말 3:16-18 말씀을 본문으로 ‘잊혀지지 않는’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나 여건속에서도 변질되



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그를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음의 분별력을 갖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를 잊지 않으신다”고 전하고 임직자들과 성도들을 축복했다.

증경회장 최용운 목사의 권면, 직전회장

오경덕 목사의 축사, 증경회장 박기만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순복음복울산교회 담임 윤득주 목사는 주님의 일에 헌신할 일꾼들을 교회에 세우게 됨을 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진리과사랑의교회 창립감사예배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최동순 목사 삼산순복음교회)는 지난 6월 18일(토) 오전 11시 진리과사랑의교회(담임 김진호 목사) 창립감사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끝까지의 복음전파사역을 충성을 다해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창립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용 목사(증평 새희망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오병용 목사(이연순복음교회)의 기도, 서기 김경준 목사(후영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에 이어 교단 증경총회장 김상용 목사(청주중앙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김 목사는 빌 2:13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항상 정로를 걸아가고 내



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목양하는 목회자가 될 것”을 당부하고 창립을 축복했다. 이어 지방회장 최동순 목사의 창립 선포, 재무 신병설 목사(주사랑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윤정현 목사(보은순복음교회)와 김윤용 목사(증평순복음교회)의 축사가 있었

으며, 김진호 목사의 인사 및 광고에 이어, 청주 중앙순복음교회의 특별 지원금을 김상용 목사가 김진호 목사에게 전달하는 시간도 있었다.

끝으로 김상용 목사의 축도로 창립감사예배를 마치고 진리과사랑의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야유회 갖고 재충전, 나라 위해 기도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김장수 목사)는 지난 6월 7일(토) 회원들과 야유회를 갖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등 비빔 목회생활 중 재충전의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회원들은 인천차이나타운 및 자유공원, 동화마을, 월미도 등 인천해변의 주요관광지를 산책하며 사랑 나눔의 한 때를 회원들과 함께 했다. 자유공원에서는 백적간두에서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마음 되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으며 선후배 간

서로 목회정보를 나누고 격려하기도 했다.

남원소망교회 창립 담임목사 취임, 월례회도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최병진 목사)는 지난 6월 25일(토) 오전 11시 남원소망교회(담임 이진문 목사) 창립 및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지역복음화를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창립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상운 목사(성광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및 재무 최강욱 목사(순복음제일교회)의 대표기도, 회계 김희수 목사(은혜사랑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최병진 목사(익산은혜와진리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마 16:13-20 말씀을 본문으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경대로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



서 지역을 복음화 시키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했다.

지방회 부회장 유관영 목사(순복음종로나문교회)의 권면, 서정복 목사(남원중앙교회)의 축사, 증경회장 김종호 목사(순정순복음교회)

의 축도 순서로 이어졌으며 2부 남원소망교회 이진문 담임목사 취임 및 공포 등의 순으로 남원소망교회 창립 및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린 후 남원소망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함께한 뒤 지방회 월례회를 갖고 각종 회무를 은혜 가운데 처리하고 모든 순서를 마쳤다.

■ 생명의 말씀 ■



김양인 목사

· 광주지방회장
· 목양제일교회 담임

성경에는 믿음의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은 저마다 살았던 시대가 다르고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놀라게도 동일한 믿음을 보여 줍니다. 욥은 극도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욥 23:10)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 시대의 타락상과 노아의 믿음을 관해서 말해 줍니다. 당시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회개시켜 새롭게 하실 생각을 하지 않고 모조리 심판에 버려졌다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창 6:8)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당시 사람들의 타락상에 감염되지 않고 그들과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란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온전히 순종하는 행동을 수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의 실상은 어떠할까요? 한국 기독교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아직도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는 신자들도 많습니 다. 그런 점에서, 서구의 목회자들은 한국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단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배생활을 한다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노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에게서 우리 믿음을 인정받으려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차원을 넘어서 순종하는 신자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야고보 선생은 말씀하기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약 2:26)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 가운데 가장 온전한 모범을 보여주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2)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예수님께서 믿으신 것과 같이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선민을 위한 하나님으로만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배타적으로 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빠진 모든 사람을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희생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곧 하나님 자

신의 희생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가 선지자는 메시아의 탄생을 기리켜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증거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 1:18)고 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을 본 받지 말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을 하 시든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행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당할 때가 언제입니까? 은혜 받고 칭찬 듣고 축복을 받을 때입니까? 대체로 그런 때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믿음생활을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축복은 고사하고 희생만을 요구할 때 우리 믿음은 시험을 당합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시련이 지속

될 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죄 없이 비난을 받거나 정죄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서 자기의 결백을 입증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고난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활동하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영광과 권능으로 오실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는 목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니 마음에 꺼림칙하게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신 21:23)고 했는데, 예수님께서서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실은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저주를 받으셨지만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예수

님을 메시야로 믿으라는 말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동일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1,2)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인정받은 성도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물론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만,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도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행하고, 교회 문을 나서면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식의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고,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이 된 성도답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는 지난 6월 1일자로 서울시 소재 상당수 교회에 ‘퀴어축제 중단’을 위한 서울광장이용조례개정 서명의 건’(담당자 : 이신희)으로 공문(서명양식지 포함)을 보내고 서울시 산하 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비라고 있다. 각 교회 담임목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서명은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재가 요구되어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성도들의 단합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연락처 :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본부
주 소 : 우(08255)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 17길 24-3 1층
담당자 : 이신희
전 화 : 070-4114-0422 / 010-4667-7299

동 정

장현일 박사, 한국이사장에 추대



캐나다 토론토 동물원 내 프랭크 윌리암 스코필드 박사 동상건립 및 한국공원설립을 추진하는 캐나다 추모재단인 스코필드 박사 추모재단이 장현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 6월 13일 한국 이사장으로 추대했다.

박영률 목사 매내팔 화촉



전 한국대학생선교회와 한기총 총무를 역임한 박영률 목사의 막내 딸 결혼 예식이 2016년 7월 9일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 노량진기독교 tv(dsl) 2층 더 라지 체플에서 거행된다. 010-5253-7932 박영률 목사

나사렛대, 캠퍼스 폴리스



나사렛대(총장 임승안) 캠퍼스 폴리스 ‘학생지킴이’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난 2009년 결성된 학생지킴이는 태권도 유단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학기 중 주·야간에 캠퍼스와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변 원룸촌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야간에 여학생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출동해 원룸 밀집지역의 지휘관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신대, 제21대 임성빈 총장



장로회신학대학교(이사장 김지철 목사) 제21대 총장에 임성빈 교수(기독교윤리)가 선출됐다. 장신대 이사회는 24일 제33회 이사회를 열고, 후보자였던 임 교수와 윤철호·박상진 교수의 소견을 들은 후 투표를 실시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한 임성빈 교수를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총장에 선출했다. 장신대 이사회는 차기 총장 선임에 위해 지난 5월 이사회에서 5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위원장 홍순화 박사)를 구성했고, 위원회는 후보 3인을 공천했다.

논평

한국교회연론회

서울광장 허가제로 조례변경을 위한 서명운동 교회가 앞장서야

서울광장에서는 작년에 이어 금년 6월에도 동성애자들의 대규모 퀴어집회가 열렸다. 동성애자들은 서울광장을 아시아의 퀴어축제 성지로 만들겠다는 심산이고, 서울시도 이를 마다하지 않는 눈치다.

동성에 조장을 반대하는 여러 단체들은 2015년의 제16회 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에서 벌어졌던 각종 서울광장 사용조례 위반 사례들(공연음란, 음란물 판매, 주류판매, 음식물 판매 등)을 채증하여 서울시에 제시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동성애자들의 서울광장 사용을 승인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때마다 박 시장은 2010년, 서울광장 사용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용신고만 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며, 동성애자들의 퀴어문화축제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서울광장사용조례 위반 사례들(공연음란, 음란물 판매, 주류판매, 음식물 판매 등) 문제는 서울광장 사용신청과 승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여러 시민단체들의 항의에도 이렇듯 하지 않는다. 법으로 해볼 테면 해보라는 배짱이다.

이는 2009년에 참여연대가 서울시민 유

권자의 1% 서명을 받아 「서울광장조례 개정 주민발의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여 2010년에 서울시의회가 이를 수용하여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교회와 시민단체들도 동성애자들의 서울광장 사용 승인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서울광장조례 개정 주민발의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여 서울시의회로 하여금 서울광장 사용신청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개정토록 해야 한다.

지난 6월 11일의 제17회 퀴어축제 까지

한국동성애자들의 행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광장이용조례에 위배된다는 사실은 서울시장도 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동성애자들의 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를 승인하는 행태는 법과 조례를 무시하는 불법에 다름없다.

어떠하든지 이제 서울시에 소재한 교회 성도들이 적극 나서서 「서울광장조례 개정 주민발의안」을 서울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민 유권자의 1%(0.01만 명) 이상의 서명날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본

홈페이지: www.agpgs.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6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사안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하여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과 정	수업 년 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M.M)	2년4학기(40학점)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③ 추천서
- ④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⑥ 가족관계증명서
- ⑦ 반명함판 사진 4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 수시
- ② 원사접수 : 수시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 나길 8 (총회목회대학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수여한다(교단 인정).
- ② 본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실시한다.
- ④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3

- 원서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3

목회자 칼럼

서헌철 목사 // 장로교신학 학장, 장신교회 담임

독도는 변함없는 우리 땅

침략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 그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며 온갖 거짓을 조작해 내는 등 참으로 파렴치한 일을 거듭하고 있다. “군국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힌 그들, “세계 제패”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 그들은 결코 세계인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 한다.

일본, 침략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 그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며 온갖 거짓을 조작해 내는 등 참으로 파렴치한 일을 거듭하고 있다. “군국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힌 그들, “세계 제패”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 그들은 결코 세계인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 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한 문 표기에서부터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일본을 왜국(倭國) 또는 왜(倭)라고 불렀으며, 13-16세기까지는 인명을 해치고 재산을 약탈하는 해적 집단이라 하여 왜구(倭寇)라고 했다. 일본을 고려중기 이후부터 조선 초기까지 한반도와 중국연안에서 약탈행위를 일삼던 해적이라 해서 왜구가 했다. 왜구의 침입은 삼국시대부터 있었지만 고려 말엽부터 조선초기까지가 가장 심하였다. 1419년(세종1년) “이종무” 장군 등이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함으로써 그들은 큰 타격을 받아 이후 침입 횟수가 규모가 크게 감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상왜(商倭)를 비롯한 모든 왜인들의 왕래를 엄금하면 싸움이 재발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시 제한적인 통교를 허락하였고, 삼포(三浦)를 개항하여 무역을 하게 하는 등 화유하였다.

그 뒤 삼포왜란(三浦倭亂, = 조선 1510년=중종5년)으로 인사야초를 맺고 왜관을 제물포에만 두게

되었으며, 사랑진왜변(조선 1544년). 달랑왜변, 1555년 명종 10년에 배 60척으로 왜구(倭寇)가 연안지방에 침입한 을묘왜변 등이 있었으나 전에 비하면 심하지는 않았고 조선의 회유정책(화일정책)은 임진왜란 이전까지 계속되었으며, 1607년(선조 40년), 1668년(숙종 4년)까지도 왜관(倭館)을 두기도 했다.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더라면 임진왜란 때에 이미 우리는 왜구에 의해 세계의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졌을 수도 있었다. 그들은 수많은 침략의 역사 속에서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잘못을 뉘우친 적이 있는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세월동안 오죽이나 괴롭혀 왔으면 “문무왕”께서는 ‘내가 죽으면 호국왕이 되어 왜적(倭賊)을 막겠으니 바다에 묻어 달라’고 했겠는가?

따라서 일본은 자신들의 국호를 日本이라 하지만 우리는 日本(여진말 본=食+本)의 일본, 또는 한일(一)본으로 한다든지, 그들은 자신들의 국기를 皇國이라 함으로 우리는 倭國(형식이 없어 방랑하는 국가)으로 표기할 수 없다면 倭國이나 日國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왕을 천황이라 한다면 우리는 천(天)신 천(示+天)황으로 또는 천(天)신 천(示+天)황(명황할 황)으로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왜왕(倭王) 또는 일왕(日王)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일본을 Japan islands off East of Asia로 표기한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을 美國으로 표기하고 있다. 함에도 왜구들은 미국을 = 米(쌀)미國이라 쓰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국 등이 일본을 일본(날일 근 본 본)이나 皇國이나 天國이나 하는 등의 표기는 성경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표기이기 때문이다. 어찌 우리의 근본이 일본이란 말인가?

일본이 사용하는 국호나 용어에 대한 표기는 비성경적인은 물론, 우상숭배와 잡신(사탄이 극성을 부리는)의 나라가 세계 제패의 욕망을 버리지 않는 교만과 오만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된다. 그들은 문자하나 하나에서부터 그들의 야욕을 볼 수 있으며 작금에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침략야욕을 후손들에게 대물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과서 왜곡이나 독도 문제도 그러하다. “독도는 우리 땅이니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언제가는 빼앗아 오라”는 망령 속에서 나온 발상은 아닌가? 또한 명산이란 명산은 물론 심지어 다산 정약용의 묘에 까지 쇠말뚝을 박아놓은 그들의 작태를 어찌 망각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에게 적극적 방어가 필요하다.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나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 오라 함이라” (행 14:15)

온선 칼럼

문찬우 목사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호수아교회 담임목사, 캐나다 Pacific Life Bible College 졸업 (M. A.), 한세대학교 목회학석사 졸업 (M. Div.), 호서대학교 신학박사 졸업 Th. D), 홍익대학교 광고홍보 대학원 과정중

이순신, 영혼을 녹여 전장에 수놓다

(고전 4 : 2)

예술가들마다 자신의 마음 속에 두고 있는 영감의 장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모차르트의 음악적 고향은 비엔나(Wien)였습니다. 광기어린 천재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마음의 도시는 오베르 쉬르 아즈(Auvers-Sur-Oise)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예술인들이 예술적 고향으로 삼는 곳이 있는데 통영입니다. 윤이상, 박경리, 유지진, 김춘수, 전용린 등의 위대한 예술인들과 한국의 고흐라 불리는 화가 이중섭의 예술적 토양도 통영이었습니다. 잘 알려진 그의 대표작 ‘소’는 물론, 그의 유화작품들 대부분이 통영에서 그려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통영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술과 예술가들의 도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실 통영이라는 이름은 그리 예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긴장감이 감도는 군사적 누앙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통영은 본래 삼도수군통제영(三道水軍統制營)의 준말입니다. 현대적으로 말한다면, 충청, 호남, 영남, 세 지역의 해군을 관할하는 해군 사령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해군은 주변국가로부터 나라의 영토를 지키는데 절대적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 실상, ‘국가 방위 총사령부’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군사적 도시 통영이 문화, 예술의 도시로 인식되는 것은 당시 전국의 핵심적인 고관들과 가족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상류사회의 중심인물들이 모인 곳은 자연스레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가 됩니다.

삼도수군통제영을 이끌었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바로 한국사 최고 영웅인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충무공은 한산도에 머물며 삼도수군통제영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한산도의 28개의 마을 이름은 전부

이순신 장군 관련 이름들이고 후에 삼도수군통제영이 세워지게 된 통영 지역에는 제승당, 충렬사, 세령관 등의 충무공을 기념하는 명소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영웅적 존재로만 보는 것은 임진왜란이었고 그 중에서도 빛나는 승리를 이룬 한산대첩이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이순신은 지형을 이용한 - 거의 예술에 가까운 - 학익진(鶴翼陣) 전략으로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임진왜란이 한창일 때 조선의 왕선조는 오해를 하게 되어 충신인 이순신을 백의종군(白衣從軍)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전투의 패배로 나라가 절대적 위기에 부딪히자 그에게 다시 전쟁의 지휘를 맡깁니다.

그 때, 이순신에게 주어진 군함은 겨우 12척. 그럼에도 이순신은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 12척으로 진도의 울돌목에서 왜군의 배 300척을 무찌릅니다. 그것이 명량대첩(鳴梁大捷)입니다.

그 결과, 호남의 곡창을 쳐서 군량미를 확보하려고 했던 왜장 풍신수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왜군들은 그 자리에서 굶어죽게 됩니다. 한 때, 오해와 질투 등의 복합적 심리로 이순신을 내쳤었던 선조는 이순신의 사후에 이 같은 시를 썼습니다. “만리장성 무너지니 누구를 의지할꼬 나라여 복도 없다. 하늘만 아득하네.”

이순신은 전쟁의 예술가입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위대한 예술이란 그림 같은 전략(智略)이나 23전 23승의 놀라운 정승전력보다는 그가 국가와 왕에게 바친 흔들림 없는 마음 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 전부를 녹여 민족의 역사에 아름다운 풍경을 수놓았던 이순신! 그는 진정한 화가였고, 그의 도시 통영 또한 예술의 도시가 분명합니다.

제66주년 6.25상기 구국기도회-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주최로 열려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대표회장 분세광 목사) 주최 제66주년 6.25상기 구국기도회 가 지난 6월 24일 (금) 오전 11시 한국중앙교회(담임 임석순 목사)에서 500여 명의 원로목회자들이 초교파적으로 모여 6.25와 같은 비극이 이 땅에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것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이날 대표회장 분세광牧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원로목사들이 더욱 사명감을 갖고 뜨겁게 나라를 위해 기도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원로목회자를 위해 헌신해온 한국중앙교회 담임 임석순 목사는 “노년의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

해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 오신 원로목사님은 선한 영적싸움에서 승리하신 원로들로서 노년의 삶이 더욱 행복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명예회장 이상모 목사의 감사인사와 상임회장 김진옥 목사의 축사에 이어 증경회장 강민원 목사, 직전회장 서상기 목사, 공동회장 원종문 목사의 나라를 위한 기도와 증경회장 최복구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제2부 기념행사에서는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이선구 대표회장과 한기원 분세광 대표회장의 업무협약식이 진행되었다.

이어서 초청특별강연에서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 김영진 상임대표(전.농림부장관)는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회에 속해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은 일제 36년의 압제와 6.25동족상잔

의 고난, 그리고 IMF 민족의 경제위란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이를 극복케 하신대 우 감사하고 존경하는 원로 성직자들이라면서 오늘의 한국이 있도록 민족재단을 쌓아 오신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휴전선의 철조망을 수거하고 6.25때 전사한 용사들의 묘역에서 나온 탄피를 수거하여 제작한 평화메달을 이 사역을 앞장서서 전개중인 한반도평화통일 국민문화제조직위원회(명예위원장 정의화 전 국회의장/대표조직위원장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이주영 전 해수부장관)를 대표하여 분세광 대표회장, 이상모 명예회장, 김성진 전 총회장에게 각각 수여했다.

이어서 민승 원로목사의 구호제창과 6.25의 노래 등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홈페이지 : www. agtc.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16학년도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목적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년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 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4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 수시
- ② 원서접수 : 수시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학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 (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3

- 원서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3

여교역자국 임원 단합대회 ... 8월 여름성회 성공적 개최 준비



여교역자국(국장 탁정신 목사)에서는 6월 13일(월)~15일(수)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임원 단합대회를 가졌다. 이번 단합대회는 고분 정부용 목사(대림번영교회)의 물심양면의 헌신적인 지원(경비 전액지원)으로 여교역자국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임원간의 소통과 단합에 목적을 두고 다가오는 8월 여름성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첫날 임원들은 충북 제천에 있는 '미송포레스트' (백담재자연휴양림)로 향했다. 주변 경치를 감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중 어느새 목격지에 도착하여 외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의 아름다운 자연 경치와 함께 어우러진 숲으로 둘러 쌓여있는 숙소에서 짐을 풀고 힐링을 테마로 한 스파에 지친 몸과 마음을 휴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은 제천에 있는 맛 집으로 유명한 곳에서 '약초밥'으로 식사를 하고 근처에 제천순복음양분교회(담임 김기진 목사)를 방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합심하여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은 아침 일찍 리솜포레스트 식당에서 호텔 조식 같은 뷔페식 식사를 하고 강원도를 향해 출발했다. 정선에 도착해 레일바이크를 타며 동심으로 돌아가 그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마음껏 풀었다. 인근의 식당에서 곤드레 비빔밥과 콧등치기 국수로 점심을 먹고 산책에 있는 대금굴에 도착, 동굴 안에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운 종유석과 석순의 경이로운 모습에 모두들 감탄을 금치 못했다.

동굴 관광을 마치고 경포대 바닷가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맛갈스러운 회로 먹고 일행은 늦은 시간 대림번

영교회 평장수양관으로 향하였다. 수양관에서 각자 개인 기도를 하고 깨끗하고 편리하게 시설이 갖춰진 숙소에서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

마지막 셋째 날 새벽에는 국장 탁정신 목사의 사회로 새벽예배를 드리고 지분 신동숙 목사의 인도로 성령충만기도회를 가졌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권면의 말씀에서 정부용 목사는 여교역자국 회원들은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잘 깨닫고 이 땅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온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를 몰아내고 바른 복음 전파를 위해 합심하는 여교역자들이 되기를 당부하고 임원들이 이 일에 더욱 앞장서 실천수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아침 식사는 임원들을 대접하기 위해 전 날부터 내려온 대림번영교회 권사들의 정성어린 수고로 맛있게 식사를 하고 평장수양관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었다. 식사 후 8월에 있을 여름 수련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합심해서 기도하고 일정과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임원회의 시간을 가졌다.



2박 3일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이번 단합대회를 통하여 임원들은 더욱 결속하고 영적 재충전을 하며 하나님께서 여교역자국을 위해 주신 사명을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할 것을 다짐하였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혈몬산교회 새성전입당 감사예배

일시 2016년 8월 8일(월) 오전 11시 30분

장소 혈몬산교회(담임 김남순 목사)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181번길 91-16
(백곡리 산113번지) 010)2415-2062

강사



조남영 목사
교단 총회장
가평순복음교회 담임



담임



김남순 목사
혈몬산교회 담임



영신상조(장례전문) 100%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택일), 영정꽃,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1호 196만원 2호 3호는 가족들의 선택임>



▲생화사진틀(선택형)



▲45인승 버스



▲최고급 리무진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전국사모연합회 제6차 사모정기월례회

섬김의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 다짐



회장
차추현사모

전국사모연합회(회장 차추현) 제6차 사모 정기월례회가 지난 6월 27일(월) 오후 1시 총회본부 3층 성전에서 열려 교단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사명감당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모임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무 박경미 사모의 사회, 1부회장 한정은 사모의

대표기도, 부서기 신명희 사모의 성경봉독, 안동성곡교회 담임 강태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강 목사는 담주 4:5-8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귀한 섬김의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므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사모회 회원들을 축복했다.

재무 김귀순 사모의 한글기도, 신임 사모회장 차추현 사모의 인사말, 협동총무 김



설교 강태진목사
안동성곡교회



총무
박경미사모

숙향 사모의 광고, 강태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드리고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각종 회무를 논의하는데 마쳤다.



총회장 조남영 목사, 십자가 승리의 길 축복

박숙희 목사 임직



설교 조남영 목사
교단 총회장

교단 총회(총회장 조남영 목사)는 지난 6월 27일(월) 오후 3시 총회본부 대성전에서 박숙희 전도사에 대한 목사임직예배를 드리고 땅끝까지의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임직자를 세우고 앞길을 축복했다.

이날 임직예배에는 교단 총무 최형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재무 조원재 목사의 대표기도, 서기 홍현철 목사의 성경봉독, 교단 총회장 조남영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마 7:13, 14 말씀을 본문으로 "좁은 문 생명의 문"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시편자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고 전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성경대로 전하고 십자가 승리의 생



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가 될 것"을 당부하고 임직자와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진 안수식은 안수위원장 교단 총회장 조남영 목사를 위시하여 부총회장 김갑신 목사, 총무 최형택 목사, 서기 홍현철 목사, 재무 조원재 목사, 회계 안재홍 목사를 안수위원으로 서약, 안수, 착의, 악수례, 공포, 임직증서 수여 순으로 거행되어 박숙희

전도사가 목사로 임직 받았음을 선포했다.

목대원장 임종달 목사는 축사를 통해 아름다운 교단에서 귀한 직분을 받게 됨을 축하하고 앞 길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했다.

이날 임직예배에는 교단 부총회장 김갑신 목사의 축도로 목사 임직예식을 모두 마쳤다.



예장연 제66회 6·25 국가기도회

6·25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없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뜨겁게 기도



예장연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대표회장 이광용 목사, 이하 예장연), 예장성서 총회 주최 제66회 6.25 국가기도회가 지난 6월 25일(토) 오전 11시 세광중앙교회(담임 김노아 목사)에서 열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남북한의 극한 대립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6.25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없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민국 국민이여 깨어 일어나라!"라는 주제어에 열린 이날 1부예배에는 예장연 상임회장 이성현 목사의 사회로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의 대회사, 상임회장 이강익 목사의 대표기도, 지도위원 이후현 목사의 성경봉독, 세광중앙교회 새빛찬양대의 찬양, 예장연 부회계 김마리 목사의 색소폰연주, 공동대회장 김노아 목사(세광중앙교회 담임, 한기총 공동회장)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동일을 향한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경제국면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무용지물이 되도록, 북을통일, 평화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상임회장 김광호 목사는 축사를 낭송하며 미움의 각오를 다졌으며 주명신 평양민속예술단장의 탈북자 간증에 이어 특별기도로 "나라와 통일을 위해", "경제지도자들과 대통령을 위해", "국가안보와 국방을 위해", "한국경제와 사회를 위해", "한국교회 개혁과 세계선교를 위해", "WCC와 이단 폐망을 위해" 주요한 목사, 조영구 목사, 장승우 목사, 정찬희 목사, 임은선 목사, 신승도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축사 순서에서는 최희범 목사(CIS기독교TV 상임고분)와 강준오 목사(교회연합신문 대표), 육옥수 목사(예장연 고분)가 6.25 66주년 국가기도회를 통해 더욱 마음을 모아 나라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했으며 청4동 어린이집 교사일동의 헌금전향, 회계 오선미 목

사의 한글기도, 서기 손대영 목사의 6.25 기도회 결의문 낭독, 애국가 제창, 고분 송현 목사의 인도로 만세삼창 후 한기총 명예회장 이승렬 목사의 축도로 6.25 국가기도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회원들은 일제 침탈과 6.25 전쟁으로 극도로

피폐해진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발전과 선교대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진리의 말씀으로 나라를 기꾸어 갈 것을 결의했다.

회원들은 또 차별금지법 반대, 종교다원주의 배격,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돌보며 남북 평화통일, 국가번영과 경제발전, 국가안보와 한국교회를 위해 애스더의 심정으로 기도하며 결의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교역자국 여름 수련회

주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시51:10)

모시는글

사랑하는 예하성 여교역자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영혼구원을 위해 늘 애쓰시며 교단을 섬기시는 목사님들을 존경하며 한분 한분이 귀합니다. 여교역자님들의 리더십을 향상하고 목회의 질을 높이며 친목과 화합을 위하여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10)를 주제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6년 여교역자 여름수련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여교역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교역자국 올림

일시 2016년 8월 29일(월) ~ 30일(화) 29일 오후 1시부터 접수

장소 은혜와 진리교회 전원성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대상 총회산하 전국 여교역자국 전회원(참가회비:일만원)

주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 여교역자국

한국교회연합, 영화 ‘벤허’ 시사회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은 지난 6월 21일 오후 서울 명동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벤허’ 특별시사회를 가졌다.

영화 ‘벤허’는 1959년에 제작돼 전세계에서 엄청난 관객을 동원하며 커다란 감동을 준 명화중의 명화로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주연상 등 11개 부문을 수상했다. 피터팬픽처스가 수입해 국내에 재개봉하는 ‘벤허’는 과거 필름영화의 단점인 화질과 사운드를 디지털화함으로써 210분동안 새로운 감동과 은혜를 선사한다.

이날 시사회는 한교연 기획홍보실장 김훈 정로 의 사회로 법인이사 황인찬 목사가 기도했으며 수



입사인 피터팬픽처스 조성열 대표가 영화를 소개했다.

1,2부로 나누어 상영된 벤허 특별시사회에 참석한

한교연 임원 등 170여 명은 “수 십년 전 극장에서 본 영화를 다시 보면서 이토록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기는 처음”이라며 “교회 성도들과 친지들에게 꼭 다시 영화를 보도록 권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영화 벤허는 7월 7일 전국 개봉관에서 일제히 재개봉한다.

한교연은 교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에는 영화 ‘부활’을, 5월에는 ‘미라클 포름 헤븐’을 특별 시사회했으며 이번 벤허까지 3회에 걸쳐 VIP초청 특별 시사회를 가졌다. 한교연 사회문화국은 기독교문화 확산을 위해 연중 계속해서 좋은 영화 특별시사회를 가질 예정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 뮤지컬 소통과 사랑의 ‘배우수업’ 기획공연

한국장애인방송연기자협회

한국장애인방송연기자협회와 피플지킴퍼니가 7월 문화이벤트로 장애인배우와 비장애인 배우들이 소통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하나되는 사회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배우수업’ 뮤지컬을 공연한다.

창작뮤지컬 ‘배우수업’은 주크박스 뮤지컬의 형태로, 노래들이 담고 있는 삶에 대한 진솔한 담론들을 뮤지컬 속에 녹여 모두가 공감하며 느낄 수 있는 일상 속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소통과 공감의 공연으로 진행된다.

한국장애인방송연기자협회는 “이번 공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소통과 이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장애인들에게도 문화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피플지킴퍼니 김은정 이사는 “남녀노소와 장애인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높은 퀄리티와 독창성을



지령하는 뮤지컬 ‘배우수업’이 7월 29~30일 총회 공연으로 노랑진 소재 CTS 아트홀에서 무료 관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6 크리스천컵 교계 기자 자선 골프대회’ 열려

원로목회자에게 백내장 수술비 전달

원로목회자들의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위한 자선 골프대회가 열렸다.

한국기독교스포츠총연합회(CSKC) 이사장 임원순 목사와 한국기독교언론진흥원재단(KCPSF) 상임대표회장 김진옥 목사가 주최하고 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KCLO) 설립자 이주태 정로와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후원회 총재 한은수 감독이 주관한 ‘2016 크리스천컵 교계 기자 자선 골프대회’ (조직위원장 김진옥 목사, 준비위원장 이주태 정로)가 13일 경기도 이천 덕평CC에서 개최됐다.

개회식에서는 한은수 감독(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후원회 총재)이 환영사, 박수광 목사(국제푸른나무 이사장)가 축사했다. 폐회식에서는 김진옥 목사가 시상했다.

주최측은 이날 대회에 이어 20일 충북 청주그랜드CC에서 목회자 골프대회를, 7월 18일 청주그랜드CC에서 평신도 골프대회를 연다.

주최측은 이를 통해 100여 명의 원로목회자들에게 백내장 수술을 지원하겠다는 포부다. 1차적으로 7월 5명에게, 이후 매월 5명씩 2년간 100여 명에게 수

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직위원장 김진옥 목사는 “이번 골프대회는 수익목적이 아닌 원로목회자들의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해 자선의 목적으로 준비되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한평생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원로목회자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준비위원장 이주태 정로는 “국가가 유공자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혜택을 주듯, 한국교회는 십자가의 씨를 이 땅에 뿌린 원로목회자들을 위로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골프대회가 아닌 원로목회자에게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긍정적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 “20일에 개최되는 목회자 자선골프대회와 다음달 18일 개최되는 평신도 자선골프대회에도 많은 관심으로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추진위원장 신원옥 대표는 “골프가 고비용의 스포츠라고 하여 더 이상 음지의 스포츠가 돼서는 안됩니다. 많은 크리스천과 목회자가 건강을 위하여 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기독교내에서도 골프가 선행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모범적으로 본을 보이기 위해 이 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홀트아동복지회, 미혼 한부모 가정에 세탁기 지원

삼성디지털프라자 후원

홀트아동복지회(회장 김대열)는 삼성디지털프라자(대표 박종갑)의 후원으로 2015년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전제품 구입이 어려운 미혼 한부모 가정에 세탁기를 지원해왔다. 삼성디지털프라자는 일시 후원에 그치지 않고, 직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

양한 봉사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삼성디지털프라자의 따뜻한 후원으로 2015년에는 미혼 한부모 22가정에 세탁기를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미혼 한부모가정 및 장애인가정에 세탁기 65대를 지원했다.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가족복지센터 임미라 센터장은 “미혼 한부모가정이 희망을 잃지 않고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삼성디지털프라자에 감사드립니다”며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마다 미혼 한부모가정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보람되며, 미혼 한부모가정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전국 5곳 교회에서 장기기증 서약예배

하늘비전교회 등 동참

6월 셋째 주일, 전국의 교회에서 사람의 장기기증 서약예배가 드려졌다. 서울과 부산, 전북을 비롯해 전국 총 5곳의 교회에서 900여 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특히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하늘비전교회 본성전(담임목사 오영택)을 비롯한 남양주성전, 안산성전, 강북성전이 동시에 장기기증 서약예배를 드려 주님의 사랑을 내뿜었다.

하늘비전교회는 오전 7시 1부 예배부터 오후 4시 4부 예배 및 청년예배를 통해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예배를 드렸다.

이미 오래 전 장기기증 서약을 한 오영택 담임목사는 이날 다시 한번 장기기증 서약서를 작성하며 성도들을 독려했다. 그 결과 504명의 성도들이 장기기증 서약에 참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또한 남양주, 안산, 강북에 위치한 지성전에서도 함께 장기기증 서약예배가 드려져 생명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목회자를 위한 ‘프뉴마설교세미나’

오는 7월 4일부터 오산광은기도원서 6차례

목회자들의 설교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뉴마설교세미나가 오는 7월 4~6일까지 2박3일간 경기도 오산광은기도원에서 열린다.

프뉴마바이블아카데미 주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금년 12월까지 매달 2박3일간 6차에 걸쳐 열리며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총장 정인찬 박사가 오랜 세월동안 성경 속에서 발견한 주옥같은 말씀들을 강의한다.

저녁엔 목회자들을 위한 특별집회, 공보길 박사(명지대교수)가 진행하는 목회상담 특강, 목회자 건강 관리법 등 유익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본 세미나의 교제로 사용되는 프뉴마주석성경은 정인찬 박사가 감수한 것으로 미국의 제하이포드 목사가

집필, 발간한 성경이며 성경 안에 각종 사진과 그림, 지도, 표 등을 보강한 역대 최고의 주석 성경으로 평가받고 있다.

7월 4일 첫 2박 3일간은 모세오경을 강의하며 이후 역사서와 사가서(2차), 예언서와 선지서(3차), 4복음서(4차), 서신서(5차), 계시록(6차) 등으로 나뉘어 12월까지 매달 3일간씩 강의된다.

낮시간 성경강의는 정인찬 박사가 하며 저녁시간 부흥회는 김한배 목사가 맡는다.

정 박사는 “목회자의 생명력있는 설교가 교회성장의 동력이다”며 “개인적 목회경험을 포함해 설교준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성경과 함께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7년도 목사고시 공고

2017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16. 8. 31(수)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내년 1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16. 9. 8(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16. 9. 22(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16. 8. 31(수)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조남영 고 시 위 원 장 목사 김인규
총 무 목사 최형택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석호

생명사랑 4기 서포터즈 리더 발대식

한국생명연화, 자살예방 생명존중 문화 확산 첫 걸음



한국생명연화는 지난 6월 18일 생명연화 대회와 함께 생명사랑 캠페인 '생명사랑발대식'을 개최했다.

'생명사랑발대식' 캠페인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제정한 '세계 자살예방의 날'인 9월 10일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후원을 통해 매년 한국생명연화 주관으로 열리는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캠페인이다.

2006년부터 시작한 생명사랑 발대식 캠페인은 그동안 전국에서 약 18만3000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수원, 광주, 인천, 전주 총 8개 도시에서 진행되며, 더 많은 국민들에게 생명존중을 위한 문화적 참여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특히 이날 선발된 서포터즈는 리더로서, 한국생명의 연화와 함께 생명사랑발대식 캠페인의 취지를 알리고 서포터즈 리더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 앞으로 3개월간 성공적인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

요한 자리였다.

또한 '해질녘부터 동틀 때까지' 아동을 해치고 빛과 희망을 찾아가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소중한 이들의 자살을 막는 생명사랑 지킴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중요한 의미도 함께 포함되었다.

앞으로 이들은 창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대외당 일 페이스메이커와 대회운영, 영상·취재로 활동할 뿐 아니라, 홍보활동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전 계층으로 생명사랑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생명사랑발대식 캠페인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한편 한국생명연화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하나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가치를 가지고 사회복지상담, 종합사회복지관사업, 자살예방센터 설치 운영 등 일련의 활동을 통해, 삶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고자 1976년 설립됐다.

기독교 결혼·미팅·데이팅 행사 개최

호프월드미션, 기독교청년 결혼문화연구소 주최

호프월드미션대표 김용국과 기독교청년결혼문화연구소(소장 정유신)가 주최하는 제8회 크리스천 미혼남녀를 위한 '기독교 결혼·미팅·데이팅 행사'가 지난 6월 26일 서울 서대문 냉천동 소재 동 센터에서 열렸다.

30대 후반부터 50대까지의 크리스천 미혼남녀(1팀 35~45세, 2팀 46~59세)를 대상으로 하며 인원은 80명(형제 40명, 자매 40명)으로 제한됐다.

미팅은 연립대별(20대 및 30대는 9월 25일)로 진행되었으며 결혼세미나와 파티, 레크리에이션, 소개시간, 그룹 및 개인미팅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져 하나님 안에서 예비된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호프월드미션은 오는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하나님의 지팡이 끝을 보라'라는 주제로 열린 'hope to china 2016'에 참여할 참가자도 모집한다.

호프월드미션은 2005년 미국에서 세워져 세계인



구의 60%가 넘는 잠자는 거인 아시아(45억)를 깨워 세계로 내보내는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는 초교파

선교단체이다. 등록은 hopewm@naver.com으로 하면 된다.

10개국 결연아동 초청 '2016 기아대책 희망월드컵'

축구 통해 아동들의 잠재력 발견하고 변화 이끌기 위해 기획

안정환 대회장 "아이들의 도전 위해 후원자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오는 9월 2016 기아대책 희망월드컵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6 기아대책 희망월드컵'은 기아대책을 통해 후원을 받고 있는 10개국 110명의 결연아동이 참가한다. 희망월드컵에는 네덜란드, 한국, 베트남, 인도, 필리핀, 우간다, 말라위, 케냐, 브라질, 페루 등 3개 대륙 아동들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오는 9월 6일 서울 송파구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리는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축구경기 및 문화교류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 사는 아동들이 축구라는 도전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후원자들이 결연아동을 '도와줘야 할 대상'이 아닌, 자신의 꿈을 실현할 잠재력이 있는 주체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행사취지를 설명했다.

희망월드컵은 서울특별시 후원하며, 안정환 MBC 축구 해설위원이 대회장을 맡고,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과 이영무 고양 지이크로 FC 감독이 명예대회장을 맡았다.

안정환 희망월드컵 대회장은 "아이들이 정당당하게 도전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후원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현재 참가 아동들은 9월 경기를 대비해 각국에서 기초체력 훈련, 실전연습 등의 훈련을 하고 있다.

CTS, 나라사랑 부흥집회, 독도사랑 음악회

'우리 땅 독도 기도원정대'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를 방문하는 '우리 땅 독도 기도 원정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나라가 어려울 때 함께 모여 기도했던 기독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교회 연합 방송기관인 CTS가 한국교회와 함께 일본의 역사 왜곡과 댁시미의 날 지정에 맞서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독도에서 개최하는 최초의 연합행사인 '우리 땅 독도 기도 원정대'는 은혜로운 시간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포항제일교회 이상화 담임목사와 CTS 폴링진 진행자 브라이언 박 목사가 진행하는 특별 부흥회와 선상에서의 영상예배는 물론, 107년 역사의 도동제일교회에서 열리는 '나라사랑 부흥집회', 독도 현지에서 펼쳐지는 '독도 사랑 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독도가 본받는 우리

영토임을 선포하는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특별히, 통일한국과 우리 땅 독도 수호를 노래하기 위한 '독도 사랑 음악회'는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된 독도에서 듣는 CTS권사찬양단, CTS소울과이어 바리톤 권웅만 교수, CTS제즈앙상블의 아름다운 하모니와 포항제일교회 클로리어스 워십팀의 신나는 공연이 펼쳐지며 모든 참석자들에게는 '독도 명예 주민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CTS 감경철 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송고한 회생을 하신 분들을 기리는 6월에 민족의 섬 독도를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인 '우리 땅 독도 기도원정대'가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믿는다"며 "외로운 섬 독도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귀한 사역에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글로벌 청소년 포럼 및 학력경시대회

글로벌선진학교 주최로 7개국 22팀 참여

글로벌 청소년 포럼 및 학력경시대회(Global Youth Forum & Global Academic Olympiad)가 지난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글로벌선진학교 문경캠퍼스와 음성캠퍼스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2008년 미국 시애틀에서 보잉사의 후원으로 시작되어 뉴멕시코, 텍사스,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등에서 개최되었으며 2013년 문경에서 개최된 이후 이번이 또다시 문경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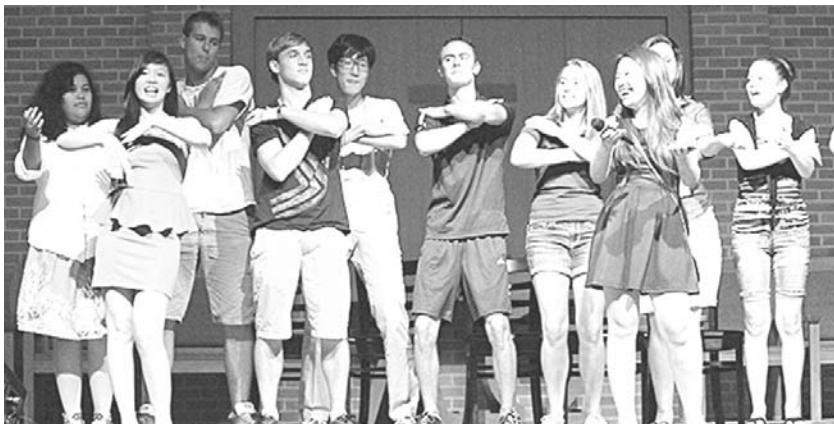
청소년 포럼은 '사랑하는 나의 조국/ Loving My country'라는 주제로 자기가 속한 조국에 대하여 소개하며 국가 간 상호협력력을 통해 국가발전의 길과 지구촌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학력향상에 대한 동기부여 및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는 미국,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및 한국 등 7개 나라 고등학교를 대표하여 약 22

개 팀 약 200여 명과 일반참가자 학생 100여 명 등 300여 명이 참여하여 명실공히 국제적인 대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지난 6월 11일 오전 11시에 열린 개막식은 지역 국회의원인 최교일 국회의원 문경시 부시장 등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들과 이번 대회의 대회장인 남진석 글로벌선진학교 이사장을 비롯한 각국의 참가학교 학교장 등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학력경시대회는 3개 교과수학, 과학, 인문학)를 9개 과목(화학, 함수, 미적분, 기초과학, 생물, 화학, 세계역사 개관, 문화개관)으로 나누어 경시하며 각 나라의 학업실력을 뽐냈으며, 포럼과 경시대회는 물론 각 나라의 문화 교류와 친선을 위하여 장학퀴즈대회 장기자랑대회 과학전람회, 초청인사 강연, GVCS 태권도 시범, 합창단 축하공연, 한국 명승지 탐방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펼쳐졌다.



2016학년도 총회목회대학원 상반기 계절학기 개설 안내

- 일시 : 2016년 7월 11일(월) ~ 15일(금) 4박 5일
- 장소 : 본 대학원 301호 강의실
- 강사 : 본 대학원 원장 임종달 목사 외 5명
- 등록마감 : 2016년 7월 4일(월) 17:00
- 기 타 : 재학생은 무료, 미 취득 학점이 있을 시 학점 대체함
- 문의 : 02)2677-0692~3(본 대학원 행정실)
- 선교헌금 : 1,000,000원(숙식은 각자 해결하셔야 합니다)
- 선교헌금 입금계좌 : 농협 302-0928-2133-91 임종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원장 목사 임종달

경기남지방회

다메섹순복음교회 새성전입당예배

이원정 목사
다메섹순복음교회 담임

경기남지방회(회장 김기인 목사, 반월교회) 다메섹순복음교회(담임 이원정 목사) 새성전입당예배가 지난 18일(토) 오전 11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30-40 동교회 신축 새성전에서 드려져 경기도 광주, 성남 일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입당감사예배는 지방회장 김기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오영섭 목사(지명교회)의 대표

기도, 증경회장 김남수 목사(맑은빛교회)의 성경 봉독, 4중주찬양팀의 특송, 교단 정책위원 정부용 목사(대림반월교회 당회장)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대상 29:10-16 말씀을 본문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믿음과 교회의 나아갈 방향'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 헌신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믿는다"고 전하고 "더욱 마음을 모아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기 위해 감동과 다윗처럼 헌신하며 사명감당을 위해 매진해 나갈"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을 당부

고 참석자들 모두를 축복했다.

이어 다메섹순복음교회 담임 이원정 목사는 새성전건축에 공로자에게 공로패와 집사임명패를 각각 수여했다.

지방회 증경회장 정석현 목사(병강교회)는 축사를 통해 아름다운 전원도시 광주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입당하게 됨을 축하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음을 믿는다고 전하고 이를 계기를 더욱 큰 부흥이 있기를 축복했다.

지방회 증경회장 신동숙 목사(임마누엘교회)는 권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셨음을 믿으며 이곳에서 더욱 큰 부흥을 이루어 가기 위해 모든 제자들이 담임 목사님과 뜻을 같이하여 더욱

설교

사회

축사

권면

기도

장부용 목사
교단정책위원
대림반월교회김기인 목사
경기남지방회장
반월교회정석현 목사
경기남지방회 증경회장
안성병강교회신동숙 목사
경기남지방회 증경회장
임마누엘교회오영섭 목사
지명교회

참고고 헌신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당부했다.

지방회 총무 박용열 목사(오성사랑교회)의 헌금기도 후 다메섹순복음교회 이원정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40여 년의 목회기간동안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고 더위 가운데도 원근차에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목회대학원 졸업여행, 선교열정 심어

교단 총회 목회대학원 졸업반 학생들은 지난 5월 30일(월)부터 6월 3일(금)까지 졸업 선교여행을 다녀왔다.

이번 졸업 선교여행은 군산아펜젤러기념관을 시작으로 신안 증도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 갯벌체험, 기도회, 유달산, 손양원 기념관, 천양과 간중, 김제 금산교회, 전주 은진교회 등을 돌아보며 선교열정을 북돋웠다.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 모두에게 유익하게 각자 마음의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랑을 보았다.



마셔도 될 정도로 안전한 알칼리이온수 주방 1종 세제 '클린플러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 감당에 최선을...! 수익금은 세계선교 위해 사용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가정생활용품의 안전 점검 미비로 사건사고가 잇달아 온 국민이 이에 대한 공정한 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당국자에게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분회는 심심치 않게 이어져 오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안전한 먹거리와 깨끗한 환경을 위해 사명감으로 친환경세제를 만들어 공급하는 믿음의 사람 ㈜한국전해수시스템 대표 유효석 집사를 만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 즉, 햇빛과 공기와 물 그 중 물에 특수한 전기분해를 일으켜서 기능수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기술은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기본 원리는 깨끗한 물에 특정 조건으로 전기분해를 일으켜 고기능성 전해수를 만드

는 원리입니다"

과일 표면에 잔류하고 있는 농약제거를 위해 세제에 담귀 놓아도 농약을 깨끗하게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유효석 대표가 개발한 무계면활성제 클린플러스는 순식간에 농약을 제거한다. 친환경 전해수가 과일표면에 남아 있는 농약을 순식간에 분리시켜주기 때문이다.

"한국전해수시스템에서 개발한 친환경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수된 물에 화학물질을 단 1%도 배합하지 않고 전기적 파워를 넣어서 살균, 세척, 탈지, 탈취, 피부진정 등의 기능을 가진 여러 종류의 기능수로 변화시키며, 사용후 일정 시간 경과 후에는 다시 자연의 물로 되돌아오므로 폐수처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유효석 대표는 모든 제품을 기술특허 상표인증을 마치고 공신력 있는 제품으로 무계면활성제 무방부제를 원칙으로 친환경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다.

과일 잔류농약제거를 위해 마셔도 될 정도로 안전한 알칼리이온수 1종 세제 클린플러스를 단백질과 지방에 대한 분해 능력이 탁월하여 찌든 때 제거를 위해 마법크린을, 속옷 세정제로서 유아, 아토피환자에게 효과적인 마법크린U, 언제 어디서나 뿌리는 살균 세정수 암소크린과 냄새의 근본원인을 잡아주는 친환경탈취제 클

린플러스 탈취제(바나나, 페퍼민트, 핑크로즈, 파인, 오렌지향, 무향) 등을 개발하여 큰 호응 속에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

유효석 대표는 아프리카선교에 큰 관심을 갖고 선교활동을 벌여 오던 중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균세정수 암소크린 하나만 있어도 질병의 확산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고 이 제품을 통해 저들을 돕기 시작했다.

살균세정수와 전해수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와 기술을 전수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를 비롯 내팔과 우즈베크 등에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대기업위주의 상권으로 형성된 우리나라의 물류체계에서 대형마트 공급이 아직은 저조하지만 친환경 무공해 무계면활성제의 강점으로 차츰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해외수출의 분도 열리고 있다고 한다.

(주)한국전해수시스템 유효석 대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으로 알고 모든 제품의 수익금은 세계선교와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어려운 나라에 나가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이 도움요청을 하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여 자체 내에서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주)한국전해수시스템 010-8240-3808, 031-212-9287 대표 유효석



필리핀 아프리카 등 국내외선교지에서 장비와 기술을 전수하며 선교사역을 돕고 있는 유효석 대표(사진 왼쪽 사진에 왼쪽). 오른쪽 사진은 좋은물인증서를 받는 장면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있다.

CTS 창사 21주년 특집다큐멘터리 최초 한글 성경, 조선을 깨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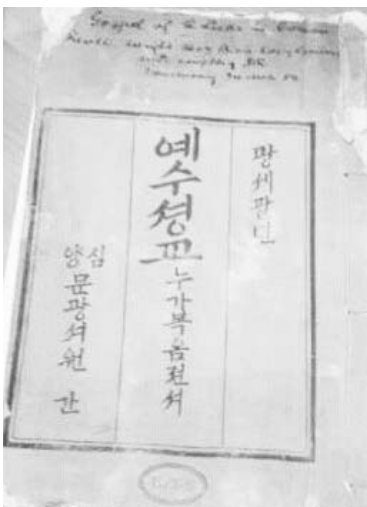
영국성서공회에서 보관 중인 최초의 한글 성경 누가복음

순수복음방송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가 창사 21주년을 맞아 특집다큐멘터리 <한글 성경, 조선을 깨우다>를 6월 30일 (목) 밤 11시에 방송한다.

'최초의 한글 성경은 누가 어떻게 번역하였으며, 한글 성경은 어떻게 조선 땅에 들어와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걸까?' 이 물음에서 시작된 <한글 성경, 조선을 깨우다>는 시대를 거슬러 한글 성경이 탄생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조명한다.

한문 성경이 있었던 당시, 천대받던 한글의 우수성을 발견하고 중국 만주에서 최초로 한글 성경을 번역한 존 로스 선교사(John Ross, 1842~1915)와 일본에서 국한문혼용체로 성경을 번역한 이수정(李樹廷, 1842~1886)은 조선에 한글 성경이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 자국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책이 있다는 것은 극히 드문 예로, 이는 기독교가 조선에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고 한글을 사용할 수 없었던 일제 강점기 시대에 목숨을 걸면서 한글 성경과 복음을 전했던 이들의



노력과 헌신을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글 성경을 통해 한글이 널리 통용될 수 있었

다는 사실과 우리 손에 쉽게 들려있는 한글 성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도서관(영국성서공회 고문서실)에 보관되어 있는 최초 한글 성경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존 로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개척한 동관교회와 한글 성경 번역 장소, 미국성서공회에서 보관 중인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 등 다채로운 한글성경 역사의 현장을 국내외 현장취재를 통해 직접 카메라에 담았다.

배우 임지규의 내레이션을 통해 전해질 CTS 창사 21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한글 성경, 조선을 깨우다>는 지금 우리가 한글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며 이는 성경을 사랑했던 이들의 공헌이 컸음을 깨닫게 하며, 잊혀져가는 선조들의 신앙영혼을 다음세대에 전하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CTS는 각 지역 케이블과 SkyLife 183번, IPTV(KT QOOK 236번, SK BTV 551번, LG U+ 180번), 해외 위성, CTS APP을 통해 전 세계에서 시청할 수 있다.

목양시평

유만석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영국 브렉시트(Brexit)가 주는 시사점

영국이 지난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Brexit)를 결정하였다. 찬성은 51.9%, 반대는 48.1%였다. '브렉시트(Brexit)'는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한다.

영국이 브렉시트(Brexit)를 생각하게 된 것은 지난 2010년 EU 국가 가운데 하나인, 그리스가 국가 부도 위기를 맞으면서 EU 회원국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EU 회원국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다 영국은 EU에 해마다 약 30조원의 재정 분담금을 내고 있다. 그렇지만 영국은 분담금을 많이 내는 만큼, 다른 나라, 독일이나 프랑스 정도의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이런 재정적 부담으로 서민들은 자신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줄어든다는 불만이 쌓여 갔다. 따라서 복합적인 불만이 고조된 것이다.

거기다 시리아 등에서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들 때문에 경제적, 정치적 부담과 함께, 유럽 내 부슬림들의 증가와 그들에 의한 테러가 빈번해지면서,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저항 심리로 작용했다는 말이 들린다. 결국 영국은 더 이상 손에 보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영국에 유익이 큰 것일까?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영국 내부의 갈등과 분열의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내부의 갈등이란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독립운동, 신·

구세대 간의 갈등과 도·농간의 갈등이다. 또한 영국 내부만이 아니라 국제질서와 세계 경제계의 혼란은 물론, EU 회원 국가 모두에게도 불확실한 미래의 과제를 남기게 되었다.

EU는 세계총생산의 30%를 차지하며, 또 세계 50여 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다. 그만큼 세계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해 오고 있다. 그런데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다른 나라들도 연달아 EU를 빠져나갈 명분을 주게 된다.

EU는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제2차 대전 직후에, 영국의 수장이었던 처칠이 유럽 대륙이 평화와 안전, 자유 속에서 살도록 '유럽합중국을 만들 필요' 주장이 결실을 맺어 유럽연합체로 결성된 것인데, 영국이 여기에서 43년 만에 하차하므로, '세계주의'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번 영국의 브렉시트(Brexit)를 보면서, 세계주의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실감한다. 각 국가가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연합체를 결성하지만, 자국의 이익과 상반될 때는, 이를 과감히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준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들은 완전히 못함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세계의 정치, 경제, 정세는 여전히 불안하다. 누구도 내일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국가 간의 대립과 분열, 갈등으로 인한 인류 불행의 원인에 대하여 미봉책이지만 어렵게 만들어졌던 틀을 깨는 영국의 결정이 두려운 것은,

과거로의 회귀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주변국들과의 역학관계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 역사는 순환된다고 한다. 물론 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으나, 그 유사성에 대한 결과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

사실 우리 한국은 국제 사회의 '세계화'로 인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나라 중에 하나인데,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한 파장을 최소화하도록 막아야 한다. 우리 정부도 긴급하게, 막대한 추경예산을 세우면서, 그 부정적 파급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때에 우리 국민들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러한 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라고 본다. 영국의 브렉시트 사건은 저소득층·저학력층의 반발이며, 사회적 부조리와 불평등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계층 간 갈등은 심각하다. 이를 해소하는데, 교회들이 완충역할을 해야 한다.

극심한 부한 경쟁과 부의부 현상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인가? 현실적인 것이라고 하여도 교회는 이런 사회 구조적인 것을 타파하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강조하며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세계의 급변하는 변화를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설

2016년 여름, 성령으로 충만케 하자

청소년들의 여름방학이 돌아왔다. 이때를 맞이하여 모든 교회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내일을 짊어지고 갈 우리 청소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기 위해 더 없는 좋은 기회임을 절실히 깨닫고 알찬 일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요즘 세상을 보면 진정 청소년들이 어떻게 눈과 귀를 뜨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을 배울까? 실로 두렵고 떨리는 세상 세태라 아니할 수 없다. 처자에 살인이고, 성추행이고, 절도·강도요, 사기·횡령이요, 그 무슨 법관·검찰 부장검사의 수십억·백억 대 처부와 전관예우 탈세·사건 사례비 갈취와 사술이요, 재벌의 비자금 만들기가 아찔하니, 압수수색이 아찔하니 하는 요지경 같은 사건들이 넘치고 있다.

진정 세상이 흥수라도 일어나서 한치레 쉴 겨를이 되지 않을까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교회가 살아 있고 도덕 윤리가 살아 있어 그나마도 악이 역제되고 선이 이기므로 세상 질서가 유지되어 오는 것이다. 그러나 악은 날이 갈수록 이 대한민국 세상을 다덮히고 있음을 본다.

생각해 보면 문제는 각인의 심령상태요 양심이라 할 것이다. 이 양심은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깨끗이 유지될 수가 없다 하였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

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찌니.." (갈5:16-26) 말씀하고 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만이 세상의 참 소망이 됨은 세상이 혼탁할 수록 더욱 찬란한 진리로 사람들에게 빛난다.

요한 웨슬리가 1720년대에 영국 대 각성 운동을 벌일 때도, 1730년대에 미국에서 요나단 에드워드가 영적 각성 운동을 벌일 때도, 1907년 김진주 목사가 평양 대 부흥운동을 전개했을 때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통회 자복하고 더럽고 죄 많은 행실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 넘쳤다고 한다.

요한 웨슬리가 영국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었으니 강도와 도적이 줄어들어 감방 안이 비어갔고 거리에는 술집이 모두 문을 닫았다고 한다. 이 모두가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 닦진 결과였다. 성령의 바람이 저 무서운 토네이도도 회오리처럼 불어오려면 그 중심에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들, 성령충만한 목회자들, 교회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2016년 여름, 청소년 방학이 겹치는 7-8월에는 우리 모두 성령충만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켜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균형법 92조 6의 합헌을 판결하라!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군 바른인권연구소 등 105개 시민단체는 지난 6.22,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균형법을 반드시 존치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균형법 제92조의 6'에 대한 '합헌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또 개최했다.

이들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을 향해 "균형법 제92조의 6 위헌소원 사건(2012헌바 258) 합헌 판결을 염원하는 안보단체 및 학부모단체 총연합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군인의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균형법 제92조의 6은 군기 확립과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해 꼭 필요 하다"며 "대한민국 군대는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이 있고 젊은 남성 의무 복무자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데,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회적 동성애'라 할 수 있는 남성 간성적 교섭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균형법 92조 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균형법 조항이 '반인권 조항'이라고 지적하며 법안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기독교 단체들 중심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강하게 개진되어온다.

패 일언하고 한재는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질서 전체를 감안하여 인륜과 양심이 앞서는 판결을 해야 옳다. 군이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거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권'이란 자연법적인 신의 질서를 이기는 권리가 아니요 현재의 재판 판결도 그 범위를 넘을 수 없음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목양시평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채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6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년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인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조용목 목사 초청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부산 영도기독교연 주최

백척간두에 처한 나라와 민족의 구원·안정과 평화 위해 기도

부산 영도기독교연합회(회장 김희택 목사) 주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지난 6월 24일(금) 저녁 7시 30분 고신대학교 예음관에서 열려 백척간두에 처한 나라와 민족의 구원과 안정과 평화를 위해 한 마음 한 뜻되어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은혜와진리교회)를 강사로 초청하여 ‘주여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주제가래 열린 이번 구국기도회는 영도기독교연합회 회장 김희택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바울교회 찬양팀의 찬양 명절교회 김남규 장로의 대표기도,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목사는 신 28:1-7 말씀을 본문으로 ‘잊지 말자 6.25 전쟁과 그 교훈’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북한군의 불법기습 남침으로 동족상잔의 6.25 전쟁이 발발한지 6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북한의 무모한 도발행위는 아직도 끝이 없으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막고 평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힘을 바탕으로

한 회해를 추구해야하며 이 힘은 월등한 무장과 강한 정신력과 경제력 그 위에 하나님의 돌보아주시심”이라고 역설했다.

조목사는 또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하며 국내외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북한 동포가 자유롭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복음으로 변혁하게 되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기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부산과 영도를 위해’, ‘남북통일을 위해’ 손동후 목사(동삼교회), 장성환 목사(예수향교회), 이인계 목사(남향교회), 한명점 목사(은혜와평화교회)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하고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히 임하시기를 뜨겁게 기도했다.

정석철 장로(생명길교회)의 헌금기도, 조범준 목사(영진침례교회)의 광고, 이선유 목사(남성교회)의 축도로 영도기독교연합회 주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지방회연합부흥성회

일시 2016년 7월 14일(목) ~ 15일(금) 저녁 7시 30분

장소 순복음아멘교회(담임 임형순 목사)

경기 포천시 소흘읍 검바위길 104, 031-543-4727

강사(14일 저녁)



조용목 목사
교단 정책위원장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강사(15일 저녁)



조남영 목사
교단 총회장
가평순복음교회 담임

경기지방회장



정광호 목사
경기지방회 회장
동문순복음교회 담임

주제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청신교회

조용목 목사 초청 축복대성회

설교



조용목 목사
교단 정책위원장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김인찬 목사
교단 중경총회장
청신교회 담임

일시 2016년 7월 12일(화) 오전 11시

장소 청신교회(담임 김인찬 목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380번길 16

